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대학 캠퍼스 내 소규모 야외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른 회복의식과 장소애착의 관계 분석 연구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Restoration and Place Attachment in Open Rest Space on University Campuses : Pilot Study

○염 태 인* 조 민 정**
Yeom, Tae-In Cho, Min-J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whether openness in small campus rest spaces affects attention restoration and the formation of place attachment. A 5-point Likert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to 65 Inha University students randomly assigned to Rest Space A (n = 32) or B (n = 33). Space B showed higher means on both outcomes (attention restoration +0.74: M = 2.68 vs. 3.42; place attachment +0.47: M = 2.69 vs. 3.16), suggesting that lower-openness settings—better securing privacy and enabling inward, meditative rest—may more effectively foster restorative experience and bonds to place. As a single-campus pilot with a small sample, the study did not establish causal relations among openness, restoration, and attachment; larger samples are needed to delineate the associations among these outcomes.

키워드 : 소규모 휴식공간, 개방감, 주의회복, 장소애착

Keywords : Small Rest Space, Openness, Attention Restoration, Place Attachmen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학 캠퍼스의 신축건물 확장과 학과 중심 재배치 등으로 인해 캠퍼스 공간이 건물 위주로 채워지며, 큰 규모의 휴식공간 주변이나 주요동선 사이에 존재하는 소규모 휴식공간들이 많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공공 쉼터 공간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처럼 규모가 작고, 부분적으로만 활용되는 소규모 휴식공간들이 학생들의 캠퍼스 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명상 같은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존 캠퍼스 휴식공간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공원, 정원, 쉼터 등 계획된 대규모 공공공간의 치유환경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규모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치유 장소로서 소규모 휴식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회복 효과에 관한 세부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내 소규모 휴식공간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휴식의 관점에서 소규모 외부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른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2 연구 목표 및 가설

본 연구는 캠퍼스 내 형성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유동성

과 개방감에 따라 분류하여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회복의식과 장소애착의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캠퍼스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지 내 소규모 휴식공간의 개방감 차이에 따른 관찰지점을 선정하고, 장소애착과 회복의식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H1 :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라 회복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라 장소애착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론

Kaplan, R., & Kaplan, S. 1989의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Being Away, Fascination, Extent, Compatibility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Ming & Xu, (2023)에 따르면, 환경의 4가지 요소를 통해 주의회복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긍정적 감정과 감각적 경험이 학생들의 장소 유대감을 형성하여 ‘장소애착 형성’에 중요한 정서적 요소로 작용한다. Zhang et al., (2024)에 따르면, 개방감과 가용성이 높은 지역 공공장소가 녹지 공간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회복 이론과 장소애착 이론에 기반하여, 캠퍼스 내 소규모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라 회복의식과 장소애착

* 인하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

** 인하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minc@inha.ac.kr)

의 차이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실험방법

3.1 연구 대상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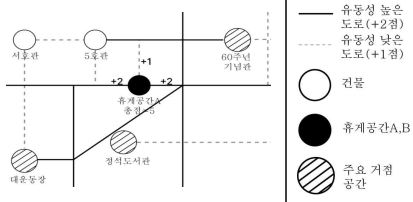
본 연구는 파일럿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지는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내 물리적 개방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통제 변수는 <표 1>과 같이 설정하여, 휴식공간 A, B (휴식공간 A-이동동선 통합형, 휴식공간 B-경계 접면형)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찰지점 A, B의 개방감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관찰로 분석한 유동성 차이가 있는 도로에 점수를 대입하여 A,B의 개방감 수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표1. 관찰지점 A,B 변수 측정 요소

항목	측정 요소	측정 방법
통제 변수	자연성의 정도	나무, 식물, 자연의 체감 정도
	시각적 프라이버시	주변 이동 동선 및 외부로 부터의 시야
	공간 크기	좌석 가능한 벤치 2석-4석이 들어가는 크기
	휴식요소	벤치, 가구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요소 동일 수치
독립 변수	개방감	그래프 지표 분석 (유동성 차이에 따른 수치 정량화)

휴식공간 A는 강의동-운동장 사이의 주요 동선에 인접한 개방형 소규모 휴식공간으로서 유동성이 높은 도로(+2)와 직접적으로 접해있으며, 5호관과 연결되는 유동성이 낮은 도로와 연결(+1)되어 있어 점수는 5점으로 평가되었다. 휴식공간 A는 소규모 휴식공간이 유동성이 높은 도로 한편에 연결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 동선과 통합된 개방성이 높은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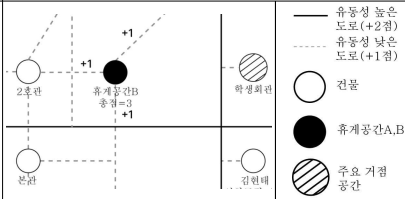
표2. 관찰지점 A

휴식공간 A (총점=5)	사진	
	도로 네트워크 기반 접근성 분석	<강의동-운동장 사이 소규모 휴식공간>  — 유동성 높은 도로 (+2점) - - - 유동성 낮은 도로 (+1점) ○ 건물 ● 휴식공간A,B ▨ 주요 거점 공간

휴식공간 B는 옹벽-호수 사이에 위치하여 주요 동선에서 떨어져있는 완충형 소규모 휴식공간으로서 유동성이 높은 주요도로와는 접해있지 않으며, 건물 또는 주요도로로 연결되는 유동성이 낮은 도로(+1)와 연결되어 있어 유동성에 따른 정량화 점수는 3점이다. 휴식공간 A보다 국소적이며 개방감이 낮은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타원형 옹벽으로 둘러쌓여 있어 입

구가 비좁고, 유동인구가 휴식공간 A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공간이다.

표3. 관찰지점 B

휴식공간 B (총점=3)	사진	
	도로 네트워크 기반 접근성 분석	<옹벽-호수 사이 소규모 휴식공간>  — 유동성 높은 도로 (+2점) - - - 유동성 낮은 도로 (+1점) ○ 건물 ● 휴식공간A,B ▨ 주요 거점 공간

3.2 조사도구 및 설문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두 종류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회복의식의 측정도구로 사용되는 설문은 주의회복이론의 Being Away, Fascination, Extent, Compatibility 4가지 요소를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의회복이론 설문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각 휴식공간에서의 회복의식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대학 환경에서 학생들의 인식된 회복성(PRS)을 측정할 수 있는 지각된 회복성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Menardo et al., (2024)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각된 회복성 척도(PRS)의 답변을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받은 개방감, 조망, 피난처 등의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각 감각 차원(PSD)으로 분석한 Peschardt & StigsdotterR., (2013)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실험에 맞게 변형하여 <표 4>와 같은 회복의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4. 회복의식 설문내용

구분	설문 내용
Being Away	A-1 : 나는 이 장소에서의 휴식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A-2 : 나는 이 장소에서 기존에 일을 집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Fascination	B-1 : 나는 이 장소에서 많은 흥미로운 것들에 관심이 끌린다.(식물과 사람들의 동적인 요소, 가구 등)
	B-2 :나는 장소에서 집중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B-3 : 나는 이 장소에 있는 요소들을 더 알고싶다.
Extent	C-1 : 나는 이 장소에 앉아서 다양한 방향으로 공간을 탐험할 수 있다.
	C-2 : 나는 이 장소가 휴식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Compatibility	D-1 : 나는 이 장소가 휴식이라는 목적에 맞게 잘 조성되어 있다고 느낀다.
	D-2 : 나는 이 공간에 휴식을 목적으로 자주 이용한다.

장소애착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 내용에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관점으로 구성되었다. 장소애착 설문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축약형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명확한 응답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장소애착 문헌에서 제시된 혼합되어있는 장소애착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장소애착 측정에 대한 접근법을 연구하여 장소애착을 측정 한 Raymond. et al., (2010)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소정체성 및 장소 의존성(PA)과 정신적웰빙, 사회적 건강, 학업성취(QCL)을 측정하여 대학생의 장소애착과 캠퍼스 생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Mousighichi et al., (2024)의 설문내용을 본 실험에 맞게 변형하여 <표5>와 같은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표5. 장소애착 설문 내용

구분	설문 내용
정서적	E-1 : 이 장소는 나의 캠퍼스 생활에 일부라고 생각한다.
	E-2 : 이 장소는 캠퍼스 내 휴식공간 중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E-3 : 이 장소는 학교생활 중 나에게 특별한 곳이다.
인지적	F-1 : 이 장소에 있는 자연이 줄어들면, 이곳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 것 같다.
	F-2 : 이 장소의 자연환경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다.
	F-3 : 이 장소에서 휴식하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행동적	G-1 : 이 장소에서의 휴식활동을 다른 장소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G-2 : 이 장소는 내가 캠퍼스 내에서 휴식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G-3 : 나는 대학 캠퍼스를 다니기에 이 장소를 자주 애용한다.

3.3 데이터 수집 절차

설문 데이터 수집은 2025년 9월 6일~15일에 진행되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휴식공간 A 32명(남자16명,여자16명), 휴식공간 B 33명(남자14명,여자19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약 25세로 무작위로 배정된 휴식공간에서 개인 유희시간(공강시간, 수업종료이후 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휴식공간에 30분간 머무른 후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참여하였으며, 동일한 학기와 시간대에 진행되어 환경적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4. 결과

4.1 통계 결과

휴식공간 A와 휴식공간 B의 응답 결과를 기초통계(평균, 표준편차, 중위수)로 분석하였다. 휴식공간 A의 경우 대부분 문항에서 평균이 2점대에 분포하였으며, 중위수 역시 2~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립적 또는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B-3’, ‘E-2’, ‘E-3’, ‘G-3’의 평균은 2.2 전후로 나타나 흥미 유발이나, 장소애착 및 실

제 이용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명상과 같은 개인적인 휴식이라는 목적에 해당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가져 해당 공간의 활용도가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6. 휴식공간A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주의회복	A-1	2.72	1.02	3.0
	A-2	2.72	1.2	2.5
	B-1	2.88	1.13	3.0
	B-2	2.44	1.03	3.0
	B-3	2.19	0.75	2.0
	C-1	2.34	1.18	2.0
	C-2	3.38	1.16	3.5
	D-1	3.06	1.19	3.0
D-2	2.38	1.21	2.0	
장소애착	E-1	2.91	1.42	3.0
	E-2	2.22	1.16	2.0
	E-3	2.22	1.212	2.0
	F-1	3.88	0.98	4.0
	F-2	2.84	1.11	3.0
	F-3	2.94	1.24	3.0
	G-1	2.56	1.15	2.0
	G-2	2.34	1.33	2.0
	G-3	2.28	1.2	2.0

반면, 휴식공간 B는 대부분 문항에서 평균이 3점대 이상으로 나타나며 중위수도 3~4점으로 휴식공간A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회복관련 항목에서는 ‘A-1’은 평균 3.29(SD=1.05)이었으며, ‘A-2’ 평균 3.51(SD=1.07), ‘B-1’은 평균 3.51(SD=1.22)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정서적 애착관련 항목에서 또한 3점대 평균을 보였으며, 특히 ‘E-1 항목’에서 평균 3.57(SD=1.04), ‘F-2’는 평균 3.66(SD=0.94)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휴식공간 A보다 휴식공간 B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휴식공간에서의 주의회복과 장소애착 형성에 휴식공간의 목적과 필요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7. 휴식공간 B 설문 결과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주의회복	A-1	3.29	1.05	4.0
	A-2	3.51	1.07	4.0
	B-1	3.51	1.22	4.0
	B-2	2.44	1.03	3.0
	B-3	3.53	1.13	3.0
	C-1	3.0	1.06	3.0
	C-2	3.57	1.14	4.0
	D-1	3.63	1.11	4.0
	D-2	3.4	1.31	4.0
장소애착	E-1	3.57	1.4	4.0
	E-2	3.03	1.32	3.0
	E-3	2.89	1.3	3.0
	F-1	4.17	0.92	4.0
	F-2	3.66	0.94	4.0
	F-3	3.06	1.19	3.0

	G-1	2.0	1.15	2.0
	G-2	2.97	1.42	3.0
	G-3	3.09	1.15	3.0

4.2 비교분석

휴식공간 A와 B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휴식공간B가 휴식공간A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가장 평균차이가 많이 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B-3 항목’에서 A는 평균 2.19(SD=0.75), B는 평균 3.53(SD=1.13)으로 +1.35차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D-2 항목’에서 A가 평균 2.38(SD=1.21), B가 평균 3.4(SD=1.31)으로 +1.02차이가 난다. 또한 ‘F-2 항목’의 경우 A는 평균 2.84(SD=1.11), B는 평균 3.66(SD=0.94)로 확인되었으며 +0.82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기초통계 분석 결과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라 회복의식과 장소애착에 차이가 존재했으며,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휴식공간 B에서 더 많은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8. 휴식공간 A, B 평균 비교

항목		A 평균	B평균	평균차 (B-A)
주의회복	A-1	2.72	3.29	0.57
	A-2	2.72	3.51	0.79
	B-1	2.88	3.51	0.63
	B-2	2.44	3.33	0.9
	B-3	2.19	3.53	1.35
	C-1	2.34	3.0	0.66
	C-2	3.38	3.57	0.19
	D-1	3.06	3.63	0.57
	D-2	2.38	3.4	1.02
	총 평균	2.68	3.42	0.74
장소애착	E-1	2.91	3.57	0.66
	E-2	2.22	3.03	0.81
	E-3	2.22	2.89	0.67
	F-1	3.88	4.17	0.29
	F-2	2.84	3.66	0.82
	F-3	2.94	3.06	0.12
	G-1	2.56	2.0	-0.56
	G-2	2.34	2.97	0.63
	G-3	2.28	3.09	0.81
	총 평균	2.69	3.16	0.47

주의회복과 장소 애착심 요인 단위로 묶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두 요인 모두에서 휴식공간B가 휴식공간 A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의회복의 경우 휴식공간 A는 평균 2.66(SD=0.38), 휴식공간 B는 평균 3.42(SD=0.19)로 나타나 약 0.74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소 애착심은 휴식공간A가 평균 2.69(SD=0.54), 휴식공간 B가 평균 3.16(SD=0.6)로, 두 공간 간 0.47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휴식공간의 개방감 수준에 따라 회복의식과 장소 애착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복경험이 높은 공간에서 장소애착 또한 더 높게 나타나 낮은 개방감이 소규모 휴식공간에서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소규모 휴식공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휴식공간 B가 A보다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대규모 휴식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방감이 회복감 및 장소애착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캠퍼스 내 소규모 휴식공간에서의 낮은 개방감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명상과 같은 개인적 휴식 활동에 영향을 주어 회복감과 장소애착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파일럿 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어 표본 규모가 작으며,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생 집단을 모집하여 표본수를 확대하고 통계적인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의 차이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결론 도출의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나 현장관찰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개방감의 수준이 주의회복과 장소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Menardo, E., Brondino, M., Damian, O., Lezcano, M., Marossi, C., & Pasini, M. (2024). Students' perceived restorativeness of university environment: the validation of the Rest@ U scale.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48483.
- Peschardt, K. K., & Stigsdotter, U. K.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k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restorativeness of small public urban green spac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12, 26-39.
- Raymond, C. M., Brown, G., & Weber, D. (2010).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Personal, community, and environmental connec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4), 422-434.
- Mousighichi, P., Mousavi Samimi, P., & Mousapour, B. (2024). Impact of biophilic design parameters on university students' place attachment and quality of campus life. *The Journal of Architecture*, 29(1-2), 99-125.
- MENG, D., & XU, L. (2023). Place attachment and healing environmen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emotions and spatial types during campus closure. *Landscape Architecture Frontiers*, 11(2), 10-32.
- Zhang, J., Zhang, Z., & Liang, Y. (2024). Exploring the Impact of Accessibility on Place Attachment in Urban Public Open Spaces: A Case Study of Jiamusi City, China. *Buildings*, 14(4), 957.